

표 2. 인삼종자 수요량 추정을 위한 자료

구 분	계	2007 t-5(1근)	...	2013 t=0(6근)
파종 면적(ha)	3,312	3,312	...	
파종량 추정면적(ha)				
1. 임하(삼)재배	331	331(*50kg/ha)	-	-
2. 임지재배	2,650	2,650	...	
직파	(1,325)	(1,325*65kg/ha)	...	→
이식	(1,325)	(1,325*65kg/ha)	...	
3. 평지(밭)재배	331			
직파	165	165(*65kg/ha)		
이식	166	166(*65kg/ha)	...	
파종량(m.t)	211	211	...	

주: 1. 임하(삼)재배 파종량 50kg/ha 2. 임지재배 파종량 65kg/ha으로 산정.

3. 평지(밭)재배 종자 파종량 65 kg/ha

#### 나. 인삼종자 수급 유통구조 분석

길림성의 재배 경영방식은 임지(임간 시설)와 산지(임하삼), 평지(밭)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임지 시설재배가 압도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어 8:1:1의 비율로 경작되고 있다.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평지(밭)재배가 권장되고 있으나 아직 재배기술이 확립되지 않았다. 초기 2~3년 근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3~4년 근 이후에는 잎이 마르고 생육이 부진하여 조기 수확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인삼종자의 밀반출 원인은 가격차(kg당 3만 원 이상의 차이), 길림성내의 수요량 증가, 고려인삼에 대한 기능성 그리고 성가에 대한 호기심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국의 인삼종자 반출이 엄격해짐에 따라 중국 남쪽 광둥성 해안으로 반출되는 동안 종자의 변질로 발아율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중국의 상인들이 한국 인삼종자를 밀반출하려는 원인은 ①종자의 가격차이로 보인다. 2014~2015년 국내의 인삼종자 가격은 kg당 50,000원인데 비하여 길림성의 현지의 경우에는 kg당 81,000원으로 31,000원의 가격차이가 있음. ② 길림성내의 인삼종자 수요량의 증가를 들 수 있음. 길림성 省정부의 인삼회복공정에 따른 면적확대, 특히 밭 재배면적의 확대에 따른 종자수요의 증가임. ③셋째, 고려인삼에 대한 성가(聲價)라고 볼 수 있다. 예부터 고려인삼에 대한 기능성에 대하여는 익히 들어왔고 조선족이 많은 길림성에서 인삼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였고, 따라서 한국 인삼씨앗이 중국 상인들에게 “돈 벌이”를 위한 호재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삼종자의 수확은 자의적이고 비개방적이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자는 3~5년 근에서 1회 채취하고 과육을 제거하고 말린 것으로 판매된다. 종자는 백산시 萬良인삼시장과 통화시 淸河鎮 인삼시장에서 종자거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인삼시장의 종자판매상에 농가가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상이 구입하여 개갑(開匣)한 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채종시기 <8~9 월>에 오전 5시에 장이 열림) 농장가격 300元/kg 시장가격 450元/kg (마진